

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1년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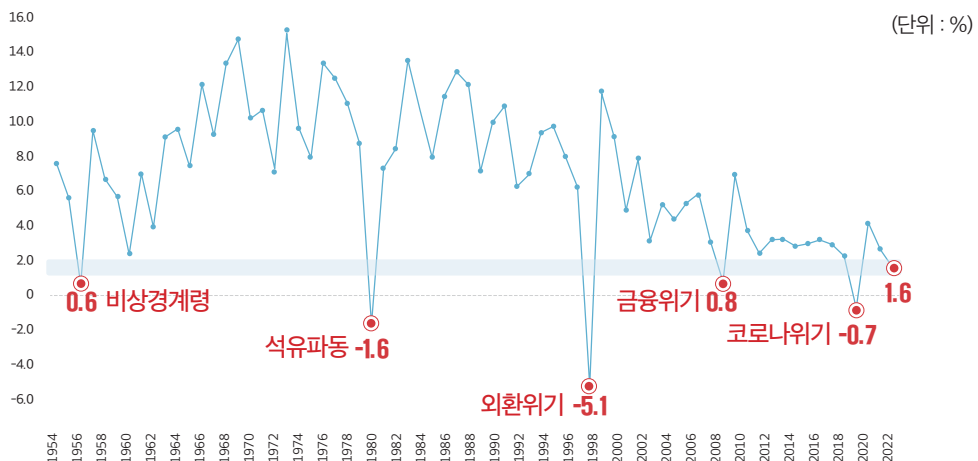
“무너지는 경제, 캄캄한 미래”

1%대 경제성장률

- 1%대 성장률은 1954년 통계발표 이후 역대 6번째
- 문재인정부 시기 2021년 4.1% 성장,
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 1.2~1.8% 전망
- 글로벌 성장률은 회복 추세, 한국 하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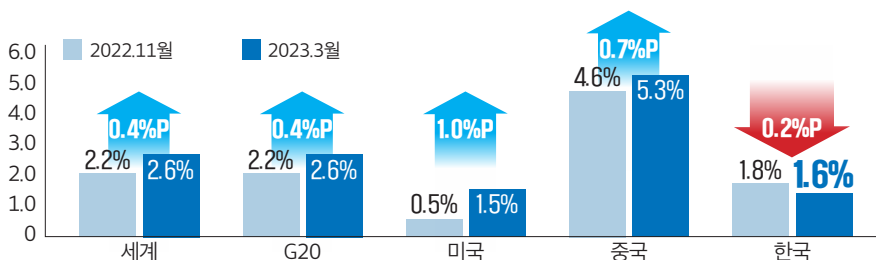
* 한국, 동아시아 국가들 중 경제성장률 꼴지 수준 전망 (ADB)

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추이



자료 : OECD Statistic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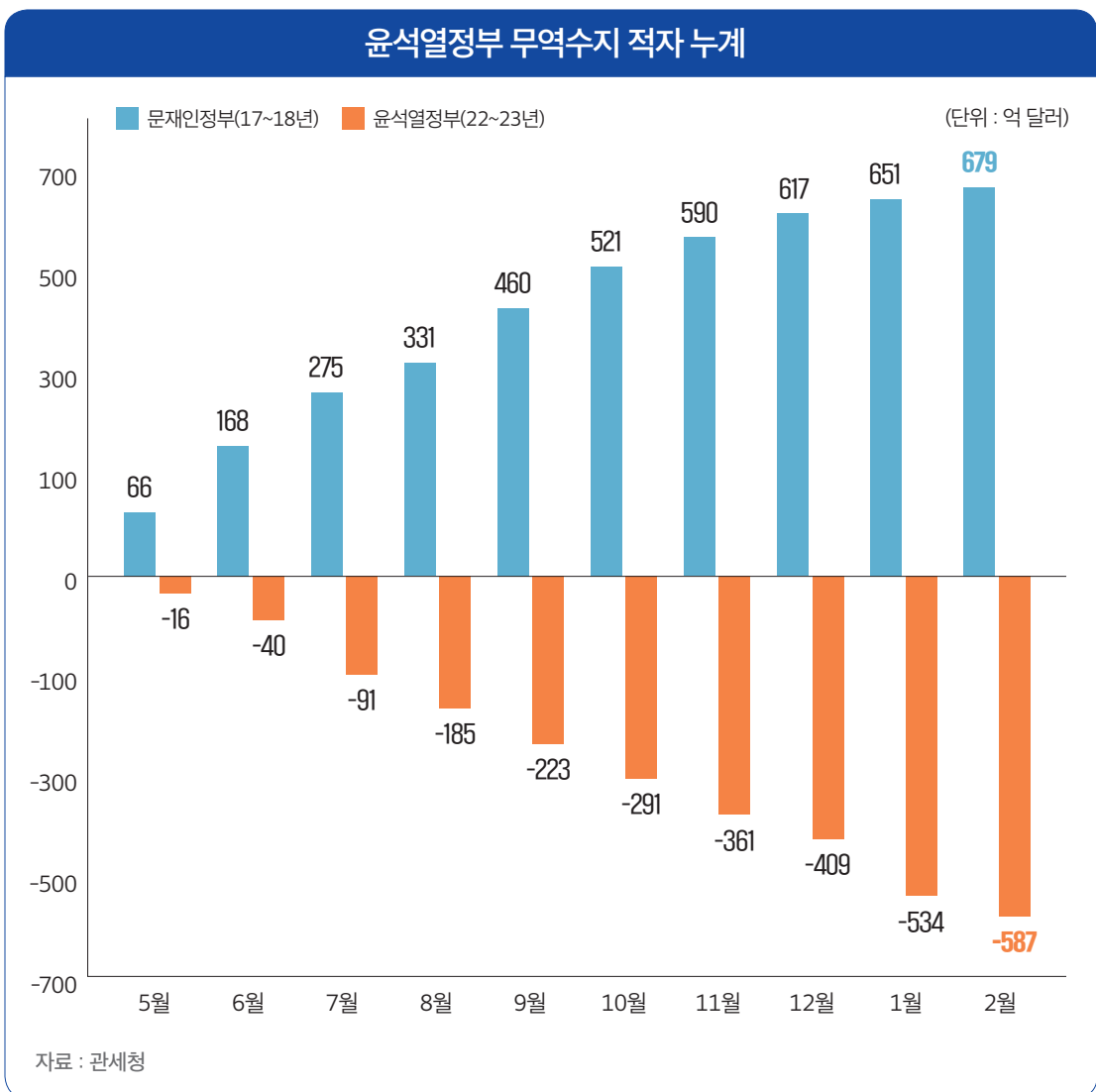
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



자료 : OECD, 『Economic Outlook, Interim Report』, 2023.3.

역대 최대 수출적자 2023.2월 적자 -587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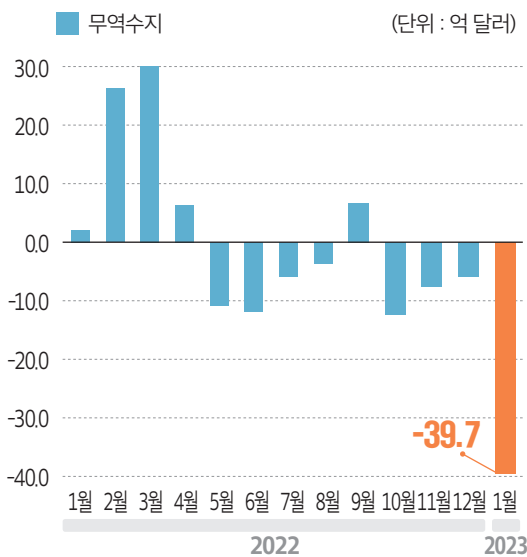
- 문재인정부 초기 무역수지 **흑자 679억 달러**,
윤석열정부 초기 무역수지 **적자 -587억 달러**
- 2023년 들어 11년 만에 **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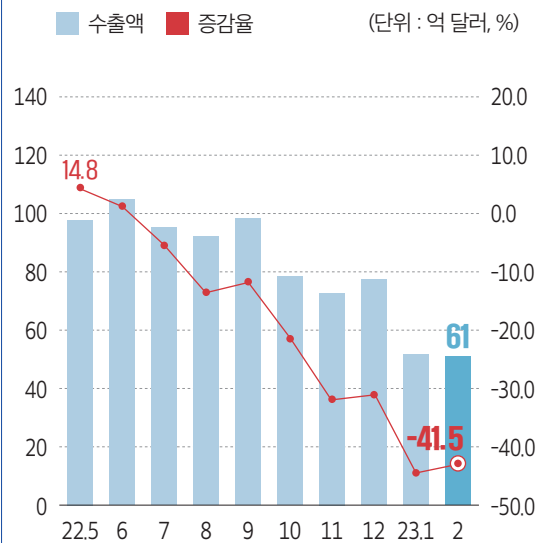
대중국 무역적자 -40억 달러 반도체 수출 최대 적자 -41.5%

- 중국, 윤석열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
- 최상목 경제수석의 ‘脫중국 선언’ 쇼크 우려
- 美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및 반도체지원법 부실대응

윤석열정부 대중국 무역수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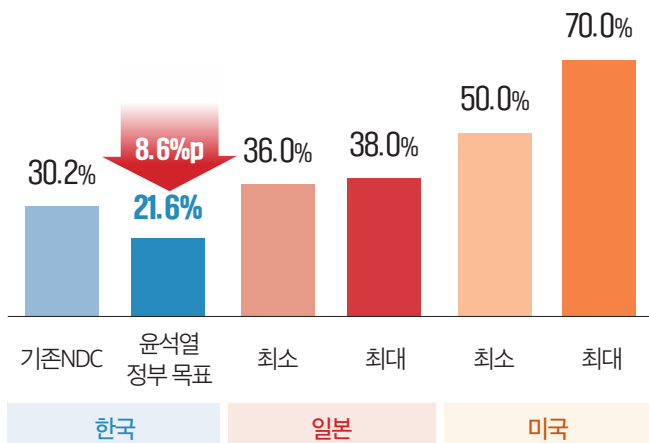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월별 수출액 추이



재생에너지 목표 감소 -8.6%p 핵심산업 수출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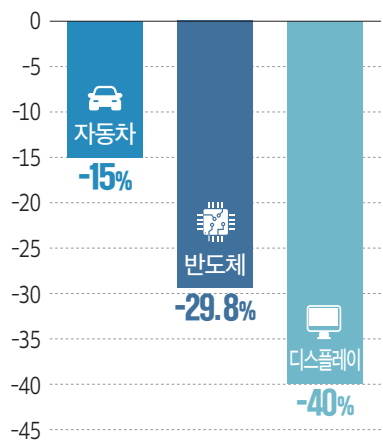
- 윤석열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.2% → 21.6%
-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
 자동차 -15%, 반도체 -30%, 디스플레이 -40% 수출 감소

윤석열정부 및 주요국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교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환경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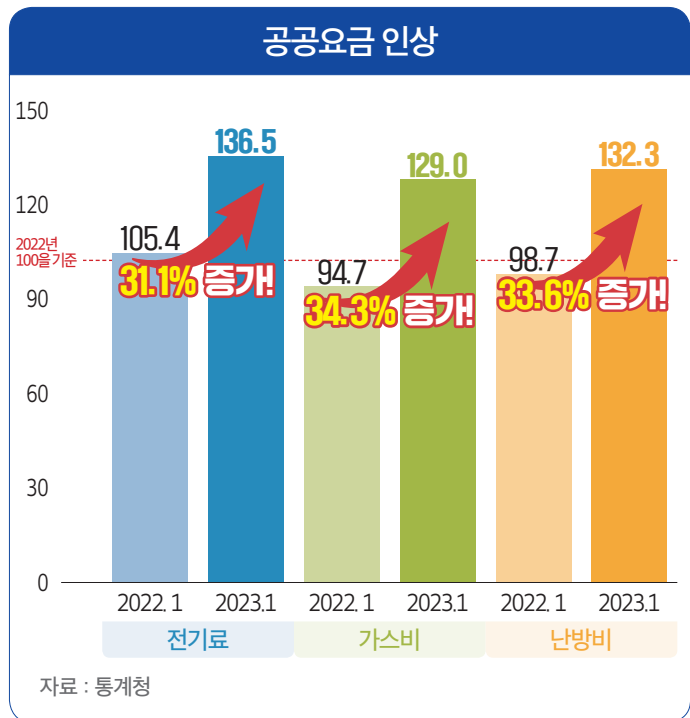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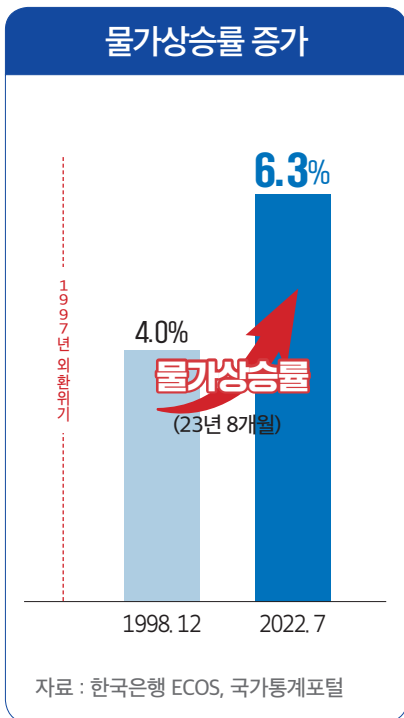
RE100에 미참여시 수출 영향



자료 : 배정환·김현욱 외(2021)

24년 만에 물가상승률 6.3% 최대치 공공요금 30% 이상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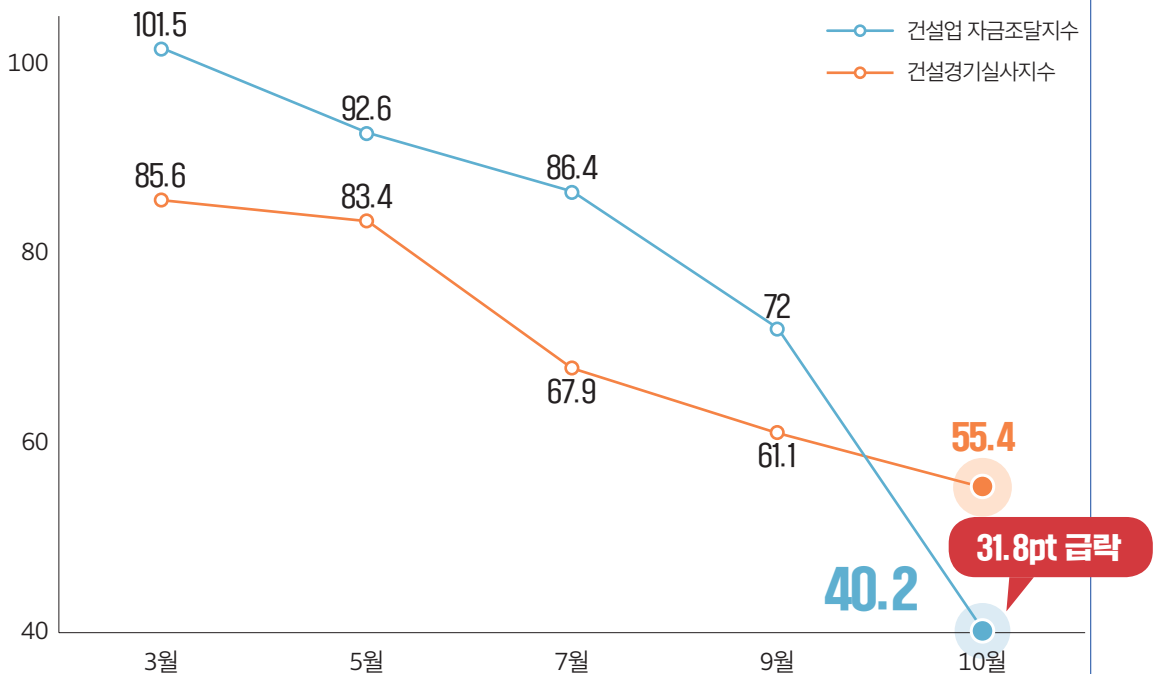
-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22.7월 물가상승률 최고기록!
- 윤석열정부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폭!
- ① 전기료 폭탄: 2023.1월 전년대비 31.1% 상승
- ② 가스비 폭탄: 2023.1월 전년대비 34.3% 상승
- ③ 난방비 폭탄: 2023.1월 전년대비 33.6% 상승



김진태發 레고랜드 사태 50조로도 해결 못한 최악의 금융사고

- 2022.9월 김진태 레고랜드 채무 2천억 불이행 선언 쇼크
- 2022.10월 건설사 자금조달지수 31.8%p 급락,
건설사 줄도산 위기 직면
- 정부 50조 긴급 투입했으나, 금융시장 여전히 불안

건설업 자금조달지수 및 건설경기실사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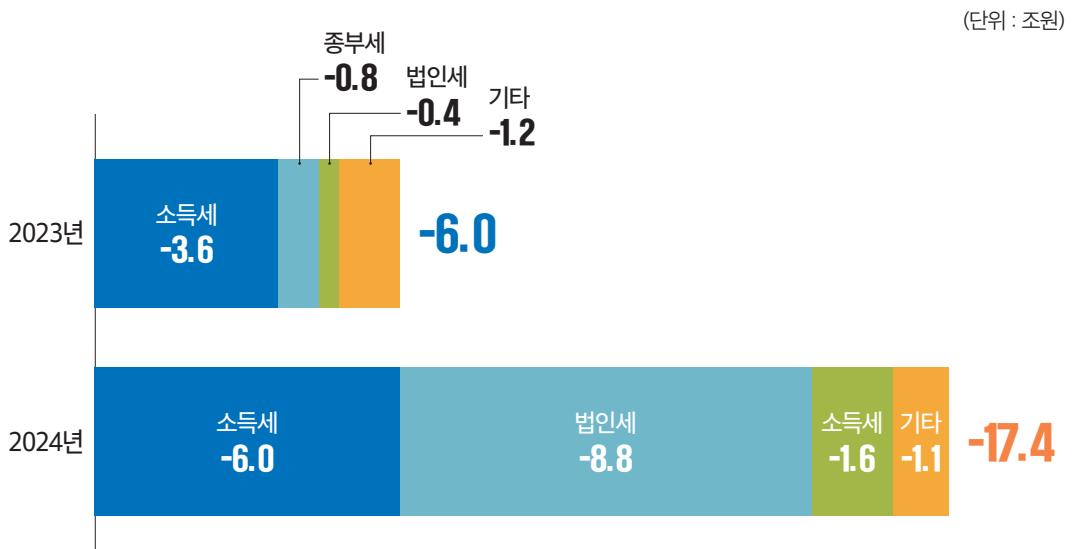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, 금융투자협회, 블룸버그

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부자감세 2024년 국세수입 감소 전망 -17조

- 윤석열정부 트리플 부자감세 추진
 - ① 종부세 납부 고액부동산 보유자: 비과세 또는 세부담 감소
 - ② 순이익 3천억 이상 100여개 법인: 세율 인하
 - ③ 종목당 주식 99억 보유 투자자: 비과세 전환 추진
- 미국, 부자증세로 7400억 달러 확보
영국, 부자감세 후폭풍으로 44일 만에 총리 사임
- 국세수입 2023년 -6조, 2024년 -17조 감소 추정

윤석열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



주 : 반도체, 수소·전기차 등의 설비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3년 3월 추가인상
자료 : 국회예산정책처(2023.1., 2023.3.)